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에 신탁재산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두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Candriam Equities L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Candriam Equities L Oncology Impact(이하 "피투자펀드")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펀드인 Candriam Equities L Oncology Impact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중대한 장기적 과제들 중 암과의 싸움이라는 특정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양학 분야(암 연구, 진단, 치료 등)의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시장 성과로부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할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선정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비재무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종목 선별을 수행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펀드와 함께 (또는 피투자펀드는) 수익 추구하고 아울러 특정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암과의 싸움에서 자원을 동원하는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고자 하며, Candriam의 ESG 리서치 및 분석을 기반으로 총 순자산의 75%이상을 지속가능한 투자자산에 투자합니다. 지속가능한 투자(Sustainable Investment)란 환경적 또는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는 경제적 활동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되, 이러한 투자가 환경적 또는 사회적 목적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투자대상 기업들이 건전한 지배구조 관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을 통한 외국통화 표시의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모두자신탁의 기초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활용하여 원/달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5억 원

-글로벌온콜로지증권모(미달러)[주식-재간접형] 12억 원

펀드유형 주식-재간접형, 모자형, 종류형
- 모두자신탁 편입비: 100% 이하
- 모두자신탁 집합투자증권 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23년 07월 17일)

- 클래스 A-E : 2023년 08월 01일
- 클래스 C-E : 2023년 07월 17일
- 클래스 C-F : 2023년 07월 17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23년 09월 14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23년 08월 02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2023년 07월 17일

벤치마크 MSCI World Net Return(NDDUWI index, USD)
95% + KBP Call 5%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월 중 환헤지 비중 89.6%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8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9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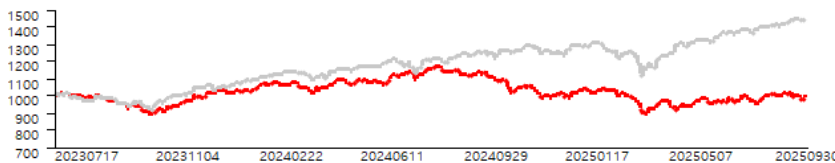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0.44%	3.38%	0.87%	-11.91%	4.79%	-	-	-0.72%
클래스 A-E	-0.51%	3.18%	0.47%	-12.61%	3.17%	-	-	-3.44%
클래스 C-E	-0.52%	3.13%	0.38%	-12.77%	2.81%	-	-	-2.70%
클래스 C-F	-0.48%	3.25%	0.62%	-12.36%	3.76%	-	-	-1.81%
클래스 C-P(퇴직연금)E	-0.50%	3.20%	0.51%	-12.55%	3.32%	-	-	0.38%
클래스 C-P2(연금저축)	-0.54%	3.08%	0.28%	-12.95%	2.39%	-	-	-4.39%
클래스 C-P2(연금저축)E	-0.51%	3.17%	0.46%	-12.64%	3.11%	-	-	-2.48%
벤치마크	2.13%	6.94%	17.97%	15.96%	52.40%	-	-	44.44%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9월말 기준, 모두자신탁 기준)

<전체>



<자산배분현황> - 피투자펀드 기준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9월말, 피투자펀드 기준)

종목명	비중(%)
Eli Lilly & Co	6.3
Astrazeneca Plc	4.1
Roche Holding Ag-Genusschein	3.9
Novartis Ag-Reg	3.8
Amgen Inc	3.1
Danaher Corp	3.0
Intuitive Surgical Inc	2.9
Pfizer Inc	2.8
Gilead Sciences Inc	2.7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2.6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E : 총 연 0.79% (판매 0.325%)
- 클래스 C-E : 총 연 0.965% (판매 0.5%)
- 클래스 C-F : 총 연 0.495% (판매 0.03%)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0.71% (판매 0.245%)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155% (판매 0.69%)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총 연 0.81% (판매 0.345%)

(공통사항)

운용 0.42%, 신탁 0.03%,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 C-E, C-F, C-P E, C-P2, C-P2 E: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9월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고, 헬스케어 업종은 월말로 갈수록 강한 모멘텀을 보였습니다. 화이자 기업과 미국 정부 간의 약가 합의가 업계 전반의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며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바이오테크 업종도 연준의 금리 인하,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기대, 인수합병 활동 재개, 견고한 임상 데이터 등에 힘입어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료기기 업종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혜국 관련 발언 등으로 인해 관세 우려가 확산되었음에도 업종 내 자금이 활발하게 순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리 의료 및 헬스케어 업종 역시 규제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한 수혜를 입었으며,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 기업과 제약 업종은 월 초에는 부진하였지만, 화이자 기업 합의 이후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월말에는 모멘텀을 회복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헬스케어 업종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견고한 펀더멘탈이 아직 밸류에이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정책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A 활동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으며, 후기 단계 파이프라인에 대해 대형주 중심의 지속적인 수요가 보였습니다. 종양학 파이프라인은 임상 및 상업화가 통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월간 성과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대형 제약주는 관세 영향, 매출 총이익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며 펀드 성과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펀드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